

▶ '95CES 겨울쇼를 참관하고 있는 필자(왼쪽에서 네번째)



## '95 CES(Consumer Eletronics Show) 겨울축제

金道鎭

(나레이동통신 전무이사/본지 편집위원)

지난 1월6일부터 4일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5 CES 겨울쇼를 참관하고 돌아왔다.

매년 겨울과 여름 2회에 걸쳐 열고 있는 CES는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멀티미디어 제품을 전시하는 전자쇼로 최근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이동통신부문이 강화되고 있다.

▼모토로라는 이번 전시회에서 미래형 전화기인 'CASIO IP-800'을 선보였다.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는 컴덱스 쇼와 더불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95 CES(Consumer Eletronics Show)가 열렸다.

CES는 매년 겨울과 여름 2회에 걸쳐, 라스베가스 및 시카고 등지에서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멀티미디어 제품을 전시하는 전자쇼로서 이전에는 가전(家電) 위주로 전시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이동통신부문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선진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CES겨울은 여름에 열리는 CES에 비해 규모가 크며, 당해년도 컴퓨터 및 이동통신기기의 시장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정보통신산업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전시홀의 규모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 KOEX 전시관의 한개의 홀보다 10여 배 정도의 크기이며, 특히 최근 국내에서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동통신기기를 전시하는 별도의 홀을 마련, 국내 이동통신 관계자들의 많은 참관이 있었다.

특히 각 홀의 초입에는 삼성을 비롯한 세계적인 그룹들이 자사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관측물과 이벤트 행사로 눈길을 끌었다. 인텔사는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해 컴퓨터가 이끄는 미래사회를 이야기식으로 이끌어냈으며, 자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곳을 방문하면 스티커를 발부해 CD-ROM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기막힌 고객 유치작전도 선보였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이 대형 홍보용 고무풍선을 진입로에 세우고, 참관단의 ID카드용 목걸이와 팜플릿 등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종이 가방을 만들어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CES에서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는 다양한 전략 구사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일변도로 제품을 출시해, 정보통신산업이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때늦은 감이 있어 보였다. 이집게도 정보통신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PC, 소프트웨어, CD-ROM 제품들의 홍수속에서 국산 제품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무척 아쉬움이 남았다. 다만 진지함이 넘쳐 흐르는 전시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자신들의 회사를 대표로 온 한국참관단의 열정이 눈요기로 그치는 국내전시회와는 사뭇달라 위안이 될 뿐이었다. 특히, 각국에서 자신들의 기업이미지를 살린 부스 운영과 화려한 디스플레이, 친절하게 모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부족함이 없었다.

### Bell South의 Simon

이번 CES에 출품된 제품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으로 PDA단말기의 시제품이었다. 종전의 PDA단말기에 비해 Cellular Phone기능이 강화된 Simon은 IBM에서 디자인한 제품으로서 소형화는 물론, 화면의 윈도즈화가 진행되어 있어, 조만간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기능면에서도 PDA는 종전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전화, Fax, E-mail, Cellular, Pager기능은 물론, 캘린더기능, 문자인식기능을 갖

춘 문서작성도 가능해, 첨단기술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문서작성에서 많은 처리속도 및 문자 인식기능이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Simon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단어의 맨처음 스펠링만을 누르게 되면, 그 문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예가 나열되고, 그 단어를 선택하면 문서작성이 이루어져 진일보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정확도도 98%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안내인의 말이고 보면, 그간 많은 비판을 통해 PDA의 기술개발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짐작하게 했다. 또한 Simon은 이동전화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키보드를 없애고, 아예 윈도즈화시켜, 전화기는 키보드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극복해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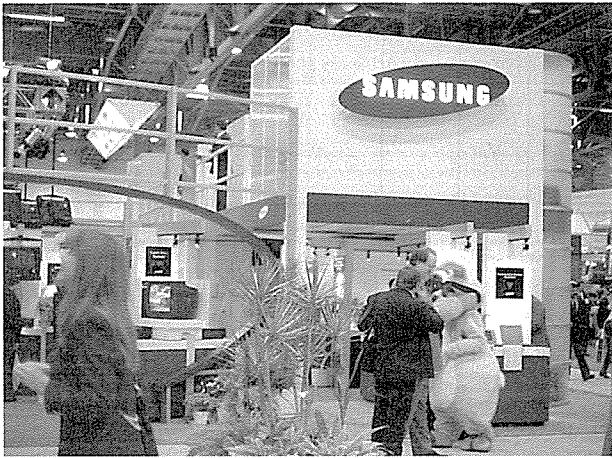
### MOTOROLA의 Word sender

모토로라가 개발한 Word sender는 미래형 전화기의 한 전형을 보여주었다. 특히 Word sender는 기존의 전화기가 단순히 음성정보만을 보내, 문서 등의 정보를 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는데, 컴퓨터와 비슷한 키보드와 화면을 통해 상대방이 사용하는 전화기 등의 단말기에 각종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음을 증명한 특이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CASIO IP-800」이라 명명된 Word sender는 앞으로 종합정보통신을 지향하는 미래 통신산업에서 전화기가 음성정보 기능을 보내는 수준을 뚝



▲AT&T의 각종 이동통신기기



어넘어 화상, 데이터, 문서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부가되어 점차로 지능화될 것을 보여주는 가장 초보적인 제품인 듯 하다.

### 통신사업자의 변화

이번 CES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AT&T였다. 장거리 전화회사로 우리에게 알려진 AT&T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종전의 모습과는 다른 단말기 제조분야에서도 적극적이라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OEM으로 제작한 화상전화기, 키보드가 딸린 전화기, 각종 이동통신 기기를 비롯한 액세서리 등의 전시는 AT&T가 단순히 장거리전화서비스 회사가 아닌 단말기 제조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통신시장 개방이후 국내 시장진출과 복한 진출을 노리는 AT&T의 변신은 향후 국내 통신시장의 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킬만한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모토로라는 멀티미디어 전시장과 이동통신 전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부스를 만들어 독자적인 위치를 과시했다.

특히, 900MHz 대역에서 1.5GHz가

지 수신이 가능한 PDC(Personal Digital Cellular)는 기존의 TAC시리즈와 비슷한 크기에 GHz 대역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와 국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CDMA 상용서비스를 위한 MOTOROLA CDMA Digital 단말기가 등장, 눈길을 끌었다.

### CD-ROM의 다양한 모습

최근 멀티미디어 PC의 등장으로 우리에게 한층 가까워진 CD-ROM은 먼저 그 다양함이 놀라웠다. CD-ROM 몇 장에 백과사전 분량의 정보를 수록한다든지, 실제 화상에 가까운 게임을 연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향후 정보통신의 주요 부분을 멀티미디어 PC와 CD-ROM이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했다.

특이할 만한 CD-ROM으로는 SLS(SYRACUSE LANGUAGE SYSTEMS)사에서 만든 「All in one Language FUN!」이라 불리는 영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일어를 유아부터 성인 수준까지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낚시바늘 선정부터 포인트 지정, 방향과 풍속 등을 지정, 생동감있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Gone Fishin」이라는 프로그램은 낚시광들로

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3D Studio game은 3D Studio Multimedia Platform을 이용한 오락물로서 기존의 게임기들이 유선으로 조정하던 것에 비해 무선 컨트롤러를 이용,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야구 등을 포함한 동작이 큰 게임을 즐길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CD-ROM은 오락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멀티미디어 PC의 약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CES에서 참관단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일종의 Electric Guitar로서 기타 Code를 사전에 내장시켜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연주를 가능하게 한 「Virtual Guitar」를 비롯해서 게임을 통해 지리공부를 가능케한 「Zip Zap Map」이라는 CD-ROM, 비디오 촬영기능과 재생기능,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Snap Shot Camcorder」가 참관단의 흥미를 끌었다.

특히 「Snap Shot Camcorder」는 기존의 캠코더의 뷰파인더가 눈을 가까이 대야만 볼 수 있었으나, 화면 전체가 3인치 정도의 액정으로 되어있어 많은 사람이 캠코더를 통해 그 자리에서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①